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로슈어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목차

- 04 「유네스코 헌장」 전문
- 05 유네스코 소개
- 0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소개
- 0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

- 12 미래 변화 대처
- 14 교육 격차 완화
- 16 사회·문화 갈등 해소

- 18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만날 수 있는 곳
- 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하는 분들
- 20 한국의 유네스코 관련 등재
- 22 한국의 유네스코 관련 네트워크
- 2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안내

발행일 2024년 9월 1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한경구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100
전자우편 online@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로슈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번호 PR-2024-MP-1

사람, 자원, 지혜를 모아
지적·도덕적 연대를 다짐으로써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듭니다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헌장」 전문(前文)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 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16일



UNESCO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실현하려는 사명을 갖고 탄생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평화의 방벽 또한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문구처럼, 유네스코는 정치, 경제, 군사적 협력보다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인류 문명의 근간이 되는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945년 설립 이래, 유네스코는 이러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며,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설

1945년 11월 16일 (「유네스코 헌장」 채택일)

소재지

프랑스 파리

기능과 역할

-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 연구 및 대응 전략 수립
-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규범 마련
- 지식 정보의 수집과 보급
-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
- 국제 협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 수행

회원국

194개 정회원국 및 12개 준회원국 (2024년 기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는 유엔 기구 중 유일하게 각 회원국에 '국가위원회'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에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54년 설립 이래 한국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유네스코 정보와 가치를 확산해 왔습니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도록 도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입니다.

창립

1954년 1월 30일

소재지

서울시 중구 명동

설립근거

- 「유네스코 헌장」 제7조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목표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등 유네스코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가 간, 문화 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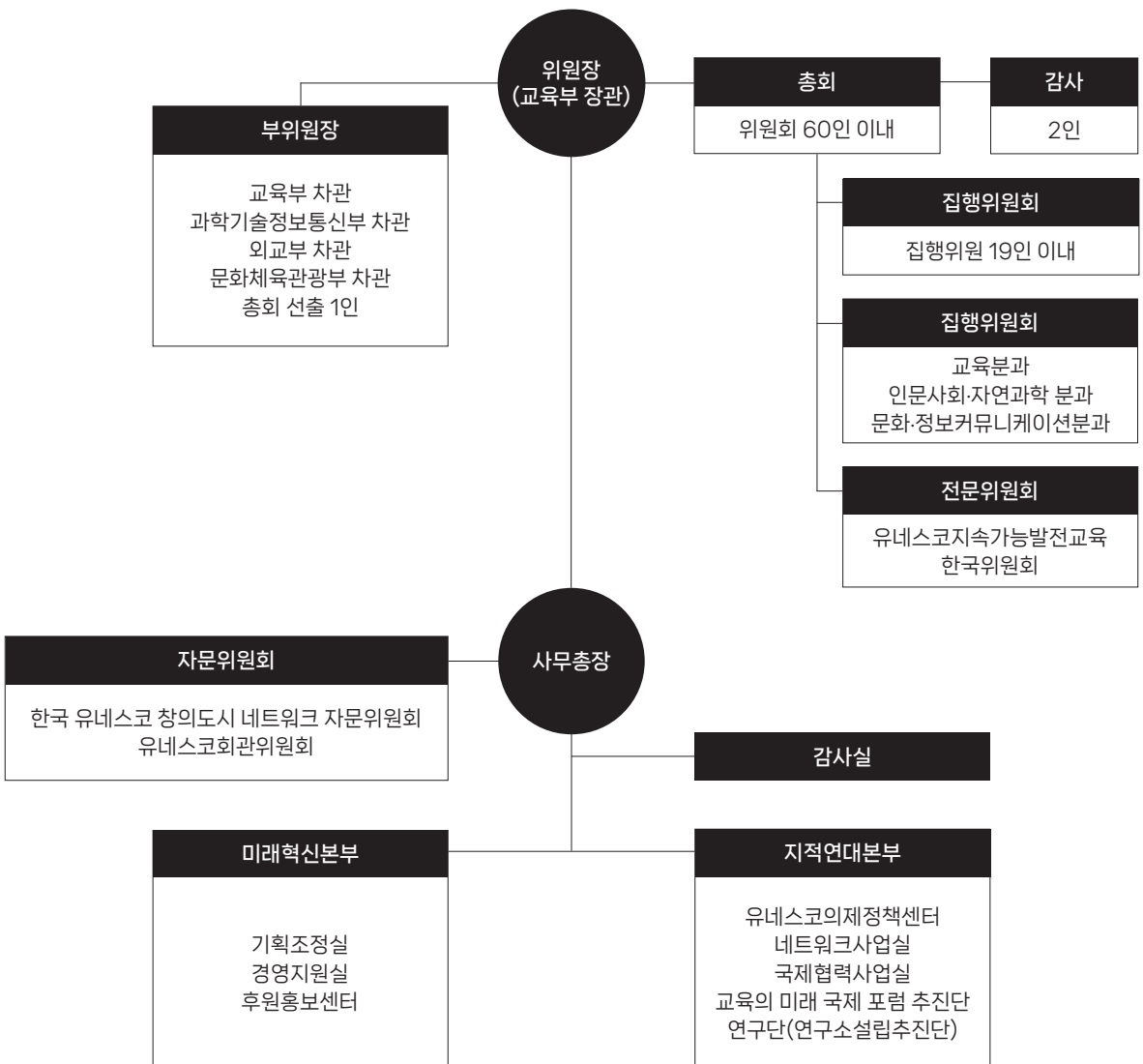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회합(1954)

기능과 역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 진작
- 유네스코 활동 관련 정책 수립,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사, 심의와 건의
- 유네스코 총회 의안 작성,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건의
- 유네스코 활동의 국내 이행에 관한 심의와 건의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 협력 및 사업 수행 조정
- 유네스코 회관 관리 및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자원 마련 등

조직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교육부 장관) 1인, 부위원장(4개 부처 차관 및 총회 선출 1인) 5인, 사무총장 1인을 포함, 관련 분야 기관 단체 대표와 전문가, 국회의원, 공무원 등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집행 감독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2인의 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시대를 앞서 더 좋은 미래를
그려왔습니다



유네스코회관 준공 기념식(1967)

1950

- 1950 한국, 유네스코 가입
- 1953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령」 공포
- 195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설립
제1차 유네스코학생건설대 파견
국정교과서 인쇄공장 설립
- 1957 『유네스코 한국총람』 발간

1960

- 1961 유네스코 쿠폰 프로그램 가입
한국해양과학위원회(KOC) 설립
국내 중·고등학교 4개교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가입
- 1963 초등의무교육 확대 위한 유네스코 본부의
'카라치플랜' 국내 확산 지원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1965 유네스코학생회(KUSA) 창립
- 1967 유네스코회관 준공(서울 명동 소재)

재산으로서의 문화'재'가 아닌,
인류 공동의 문화 '유산' 개념을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북한 교과서 인쇄용지 지원 사업(2002)

1990

- 1990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창설
(현재 KOICA의 모태로, 1991년 이관)
- 1995 우리나라 첫 세계유산 등재
(석굴암 및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2000

- 2000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설립
(2010년 청사 이전)
- 2001 한일교사대화 사업 시작
- 2002 북한 교과서 인쇄용지 및 윤전기 지원사업

학교교육이 교육의 전부일 때,
 '평생교육'을 소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네스코인간과 생물권 계획 기념물 (1983)

1970

- 1970 '평생교육' 개념 국내 도입
- 1974 제1회 조국순례대행진 개최
- 1977 유네스코청년원(현 유네스코 평화센터) 개원

1980

- 1980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한국위원회 설립
 (2009년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
- 1984 아태지역 청소년지도자 연수 개최

경제발전만이 목표가 될 때,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2010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활동가 발대식

2010

- 2010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젝트 사업 시작
- 2014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민간 후원 모금 시작

2020

- 2020 대한민국 유네스코가입 70주년
- 2023 글로벌 청년포럼 개최
- 202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70주년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최 (예정)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미래 변화 대처, 교육 격차 완화,
사회·문화 갈등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 미래 변화 대처

함께, 인류를 위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듭니다

COVID-19 팬데믹을 겪은 인류는 현재 시의 급격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국제 안보질서의 혼란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초고령화 및 지역소멸의 위기와 함께, 전 지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문해력¹⁾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람직한 미래로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아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리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바람직한 미래 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양성**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진 전문가를 발굴하고 양성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인재를 모아 우수한 전문가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2 **미래 문제 진단과 해법 제시**
한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할 미래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또한, '이슈브리프'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우리 사회의 현안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3 **미래 대처 역량을 높이는 지식 확산**
더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미래 변화의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토크'와 국제 포럼 등을 개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 실천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유네스코 토크(2023)

1) 미래문해력: 기후변화, 국가 간 분쟁, 생물다양성 손실 등이 심화되는 암울한 글로벌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미래를 상상하며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

미래담론 연구

한국사회의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행동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문별 한국사회의 미래 변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활동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슈브리프 발간

유네스코 이슈브리프는 한국의 유네스코 외교와 국내외 유네스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정책 브리프 자료입니다. 2021년부터 발간해 온 이슈브리프는 유네스코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지닌 분야별 국내 전문가 풀을 확장하여 한국의 유네스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정책회의의 참가

유네스코 주요 의사결정회의(총회, 집행이사회)와 국제사회 규범을 형성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협약 회의 및 정부간위원회에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합니다. 유네스코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여 주요 결과를 국내에 확산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책임감과 영향력을 가지고 유네스코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유네스코 토크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와 현안은 유네스코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시민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유네스코 토크는 전문가와 시민 사이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저변을 넓힙니다.

유네스코 국제/정부간 과학 사업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사업^(GGP) 등 과학분야에서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활동에 국내 전문가, 기관들과 함께 참여하고, 국내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픈 사이언스 - 과학분야 네트워크 협력

과학 개방, 공유, 협력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오픈사이언스 권고가 202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권고의 가치를 국내에 확산하고 이행하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SI윤리와 과학기술윤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와 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활동에 국내 전문가와 기관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윤리 권고'⁽²⁰²¹⁾,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²⁰¹⁷⁾,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관한 권고'^(2017 개정) 등 유네스코 규범을 국내에 확산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I윤리를 비롯해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국내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협력

전세계 199개국의 국가위원회는 회원국과 유네스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자국의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 활동을 장려하며, 유네스코 이념을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직원교류를 추진하는 등 활발히 협력하고 있어, 가장 모범적인 국가위원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위원회 총회나 지역회의와 같은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

교육 격차 완화

함께,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는 세상을 만듭니다

국가 간, 국가 내 교육 격차 확대는 전반적인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는 오랜 기간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국제 교육 의제를 이행하고, 유네스코학교를 통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고루 수준 높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제안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1

전 세계 교육 발전 방향 모색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무대에서 한국 정부와 함께 전 세계 교육 발전에 관한 논의를 선도합니다.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의 교육 목표(지속가능발전목표 4번)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2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실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책임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 480여개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는 유네스코의 이념과 가치를 확산하는 학교들의 모임으로,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외된 사람들의 교육 기회 확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공교육의 테두리 밖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발도상국의 평생학습 및 학교 밖 교육 정책 그리고 과학과 문화 분야 지원에 힘써 우리나라 밖에서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을 통해 역량을 쌓고 발전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브릿지 2단계 라오스 현장(2024)

교육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네 번째 목표(SDG4)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다룹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SDG4 국가조정관인 교육부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국내 SDG4-교육 2030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SDG4 및 교육변혁 공약에 대한 이행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국내외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한국이 SDG4 관점에서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고 정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는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 유네스코 이념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세계 182개국 12,000여개 학교들이 협력하는 국제 교육 네트워크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 485여개 유네스코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가 평화를 실천하고, 유네스코학교 간 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 유네스코학교, 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 등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며 우수활동 사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는 관련 부처,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개정된 '2023년 평화·인권·국제이해·협력·기본적 자유·세계시민·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의 국내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국가 이니셔티브' 이행을 촉진하고자 자료를 발간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콜로кви움을 개최합니다.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교육의 미래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²⁰²¹⁾」 발간 3주년을 맞이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보고서의 권고를 실천으로 옮기고자 2024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2024년 12월 2일~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 포럼에서는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국내·외 교육 전문가, 교육자, 학생 1,000여명이 모여 회원국의 연구·정책·실천 동향을 공유하며, 글로벌 교육 이슈와 한국 사회 교육 개혁 과제를 연결해보고, 보고서에 제시된 각종 아이디어에 관한 미래 교육 정책 수립과 실천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로써, 2024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은 교육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대화를 정례화하는 데 기여하여 교육 분야의 지속적 협력과 세계 교육 미래의 변화 촉진을 가능케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브릿지 프로그램

전세계에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성인은 7억 8천만 명이 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2억 4천만 명에 달하며, 우리가 함께 완화해야 할 국제사회의 교육 격차는 여전히 큰 현실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브릿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티모르, 라오스, 부탄, 말라위, 스리랑카, 요르단, 파키스탄 7개 국가의 학교 밖 교육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교육부의 비형식교육정책 역량을 강화합니다. 브릿지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인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교육을 위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

사회·문화 갈등 해소

함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편견과 차별이 사회적 불안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 세대 간 갈등, 허위 정보의 확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구 구성의 다변화로 인해 문화적 긴장과 차별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다름에 대한 오해와 편견, 차별, 배제를 극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평화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래 세대와 교사 간의 대화, 유네스코 유산 제도 등을 통해 세대 및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1 **평화를 위한 청년 대화 촉진**
국내의 청년들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두고 대화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글로벌 청년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래 세대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유학생과 이주민의 국내 정착과 사회·문화적 갈등 예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2 **교사 및 학생 국제 교류를 통한 평화 확산**
우리나라와 다양한 나라의 교사와 학생들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들이 폭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사회·문화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 3 **유네스코 유산을 통한 국제사회 평화 증진**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과 유산을 중심으로 한 대화를 촉진하여 유산이 갈등보다는 평화의 매개가 되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일부로서 유산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의미를 찾고 알리기 위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202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역량강화워크숍(2023)

한일교사대화

한일교사대화는 한-일 교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으로서, 2000년 일본 문부성 나카소네 히로후미 장관이 방한하여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에게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교사교류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3,100여명의 한-일 교사가 양국의 교육현장을 경험하며 서로의 교육환경,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국의 교육현장에서 평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해왔습니다.

기록유산 역량강화 워크숍

유네스코는 인류 문명과 지식의 풍요를 증명하는 기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 간 등재의 불균형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109개 국가의 기록물이 아직 등재되지 못했고, 50% 이상의 등재 유산이 유럽의 기록물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기록유산 분야의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훈련 워크숍을 통해 등재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돕습니다. 유네스코 유산의 등재가 지역간, 문화간 균형을 이루는 것은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등재유산 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유산 사업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자국 중심적 유산 해석과 실천에 맞서 유네스코의 가치를 핵심으로 한 보편적·국제적·장기적인 유산교육을 실시합니다. 단편적인 현행 유산교육에서 벗어나 기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2024년 3월 현재 전세계에는 1,199건의 세계유산^(문화, 자연, 복합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6건^(문화 14건, 자연 2건)이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한국의 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재신청서 작성 및 심사,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에 자문하고, 세계유산 로고 사용 절차를 안내하고 승인합니다.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속시켜주고 이를 통해 전세계 문화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되는 무형유산은 형태가 없다는 그 특성상 특히 사라지기 쉬운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형의 유산을 잘 보호하여 후세대에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무형유산협약 이행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 및 카테고리2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회의의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한국 대표단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 목록을 만드는 노력을 통해 유네스코는 기록유산 보존 및 관리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기록물에 대한 전 세계적 접근성을 향상시켜 현재와 미래 세대의 교육, 국제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도국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역량을 강화하며, 기록유산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5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서 제공하는 주요한 자료를 국내에 번역, 발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만날 수 있는 곳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
유네스코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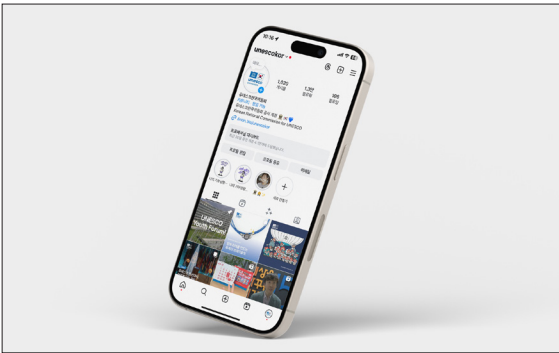
유네스코뉴스

유네스코뉴스는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 이슈와 소식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QR코드로 구독 신청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을 받아보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웹사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각종 활동과 소식, 발간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스타그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관련된 가장 빠른 소식을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통해 받아보세요!



유네스코 회관

1967년 서울 명동에 건립된 유네스코회관은 국내 유네스코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근·현대 대한민국 국제 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건물 건축 양식에 담긴 특별한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하는 분들

친선대사



배우 이영애



음악인 양방언



배우 신세경



팝페라테너 임형주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유네스코 프렌즈



축구선수 이재성



유튜버 영알남(양승준)



인플루언서 성해은

한국의 유네스코 관련 등재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합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1995 석굴암과 불국사(문화)
- 해인사 장경판전(문화)
- 종묘(문화)
- 1997 창덕궁(문화), 화성(문화)
- 2000 경주역사유적지구(문화)
-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문화)
- 2007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자연)
- 2009 조선 왕릉(문화)
- 20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문화)
- 2014 남한산성(문화)
-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문화)
- 2018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문화)
- 2019 한국의 서원(문화)
- 2021 한국의 갯벌(자연)
- 2023 가야고분군(문화)



무형문화유산은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전 전통이나 공연예술, 전통 지식이나 관습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 200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 2003 판소리
- 2005 강릉단오제
- 2009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 처용무
- 2010 가곡,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
- 2010 대목장,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
-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 유산
- 2011 택견, 한국의 전통 무술
- 줄타기, 한산 모시짜기
- 2012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 2013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 2016 농악
- 2015 줄다리기
- 2016 제주해녀문화
- 2018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
- 2020 연등회, 한국의 등불 축제
- 2022 한국의 탈춤



세계기록유산은 세계 각국의 중요한 기록물을 보호·보존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1992년 시작된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통해 지정됩니다

- 1997 『훈민정음(해례본)』
- 『조선왕조실록』
- 2001 『승정원일기』
-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 2007 조선왕조 『의궤』
-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 2009 『동의보감』
- 2011 『일성록』 ,
- 1980년 인권기록유산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 2013 『난중일기』 :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 2015 한국의 유교책판
-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 2017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 17세기~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
- 2023 4.19혁명기록물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unesco

인간과 생물권 사업



unesco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은 1971년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을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학습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1982 설악산
- 2000 제주도
- 2009 신안 다도해
- 2010 광릉숲
- 2013 고창
- 2018 순천
- 2019 강원 생태평화
- 2019 연천 임진강
- 2021 완도
- 2024 창녕

세계지질공원은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 현장으로서,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이며 보전, 교육 및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2010 제주도
- 2017 청송
- 2018 무등산권
- 2000 한탄강
- 2023 전북 서해안

한국의 유네스코 관련 네트워크



unesco

창의도시네트워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각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더 나아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형성된 도시 네트워크입니다.

- 2010 서울특별시(디자인)
이천시(공예와 민속예술)
- 2012 전주시(미식)
- 2014 광주광역시(미디어아트)
부산광역시(영화)
- 2015 통영시(음악)
- 2017 부천시(문학), 대구광역시(음악)
- 2019 원주시(문학)
진주시(공예와 민속예술)
- 2021 김해시(공예와 민속예술)
- 2023 강릉시(미식)



unesco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5년에 창설되었으며, SDG 4(양질의 교육)와 11(지속가능한 도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전세계 학습도시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사례 공유, 정보 교환, 공공 프로젝트 기획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강남구, 관악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은평구, 송파구, 용산구)
- 인천(연수구)
- 경기(고양시, 광명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연천군, 오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하남시, 화성시)
- 강원(영월군, 인제군, 화천군)
- 충북(진천군), 세종
- 대전(대덕구, 유성구)
- 충남(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 전북(군산시, 부안군, 익산시, 전주시 진안군), 광주(서구)
- 전남(나주시, 순천시, 영광군)
- 경북(구미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
- 대구(수성구), 경남(통영시)
- 울산(남구), 부산(남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unesco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는 1953년부터 평화와 인권, 문화간 이해 등 유네스코의 이념과 정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추진해온 전 세계 학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학교별

초등학교 100개교, 중학교 84개교
고등학교 289개교, 특수학교 8개교
대학교 3개교

지역별

서울 69개교, 인천 38개교,
경기 103개교, 강원 13개교
충북 37개교, 세종 5개교
대전 28개교, 충남 20개교
전북 20개교, 광주 7개교
전남 28개교, 경북 22개교
대구 16개교, 경남 36개교
울산 10개교, 부산 18개교
제주 14개교

합계

484개교



유네스코 유니트윈 네트워크와 유네스코 석좌는 고등교육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유네스코 이상 실현을 위해 1991년 제26차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프로그램입니다.

유네스코 석좌

- 1998 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숙명여자대학교)
- 2012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2017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역량강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2023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과 청정 환경 증진(성균관대학교) 세계시민교육과 문화다양성(강원대학교)

유네스코 유니트윈 네트워크

- 2007 개도국 지속발전 역량강화(한동대학교)
- 2016 ICT 및 리더십을 통한 여성역량강화(숙명여자대학교)
- 2019 양질의 교사교육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한국교원대학교)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관은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유네스코 사업을 이행하고 연구하는 국제협력 기관입니다. 유네스코 총회 승인을 거쳐 유네스코와 회원국 간의 협정을 통해 회원국이 직접 설립하는 국내 조직이라는 점에서 유네스코 직할 조직인 카테고리 1 기관과 구분됩니다. 카테고리 2 기관의 설립에 관한 협정은 최대 8년까지 유효할 수 있으며, 이후 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갱신될 수 있습니다.

- 2000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 2011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ICHCAP)
- 2016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
- 2017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i-WSSM)
- 2020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ICDH)
- 2022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
- 2024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GCIDA)

한국이 진출한 유네스코 기구

2020-2024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2021-2025	국제 수문학사업 ^(IHP)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사업 ^(IFDC)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ICPRCP) 위원국
2023-2025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이사국
2023-2027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인간과 생물권사업 국제조정이사회 ^(MAB-ICC) 이사국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IGBC) 이사국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위원회 위원

한국이 지원하는 유네스코 국제상

유네스코 국제상은 인류의 도덕과 지적 연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1989 제정)

문해, 특히 개발도상국 모어^(母語)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3명^(名)에 매년 문해의 날^(9월 8일) 수여되는 상

유네스코 직지상(2004 제정)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기념, 기록유산의 보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2년에 한 번씩 수여되는 상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유네스코 상주대표부는 유네스코 회원국의 정부와 유네스코 간 효율적 업무 협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 1978년(2010년 재설치)

홈페이지 <http://unesco.mofa.go.kr>

이메일 dl.coree-rep@unesco-delegations.org

전화 +33-1-4410-2400

주소 33 Avenue du Maine, 75015 Paris, France

70GETHER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모금캠페인입니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넘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TOGETHER)
좋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FUTURE MAKER가 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기간

2024년 1월 - 2026년 12월

참여방법

일시후원



정기후원



후원계좌: 국민은행 375301-04-106542
(예금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부 유형

선택기부

미래 변화 대처

교육 격차 완화

사회·문화
갈등 해소

위임기부

유네스코
비전기금

선택기부: 특정 기금을 선택하시면, 해당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위임기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금 사용처 및 용도를 위임합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

Creating a Better Future Together

